서구청장 재선 야 4당 후보 단일화 가속

1차 탈락 후보 반발 후유증…선거구도 요동칠 듯

후보들 잇따라 출마 선언·무소속도 합류 움직임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非) 민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단일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난립한 예비후보들을 4명으로 1차 압축하는 과정에서 탈락 후보들의 반발과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등 민주당이 후보 공천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으면서 선거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에 따르면 비민주 야 4당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은 10·27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를 갖고 단일화 방안과 공동정책 개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민주 야 4당은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비민주 단일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맞서 선전한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단일후보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며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각 당 별로 후보를 낸 뒤 늦어도 내달 5일까지는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단일화 방식은 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이외에 선거인단구성,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단일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 당의 후보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후보 단일화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국민참여당의 서대석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후보 선출을 위해 이날부터 5일 동안 당원투표를 진행중이다. 단독후보로 등록한 류상근 서구당원협의회 위원장(서구 장애인자립센터 이사)에 대한 당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예비후보 1-2명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대열에 합류할 태세다.

무소속 송재선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공천작업이 구체화되는 만큼 야 4당도 조속히 후보를 확정해 무소속 후보와 비 민주당 연대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TV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야 4당과 시민사회진영,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룰 경우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선거구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서구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 당의 지분을 앞세울 경우 단일화 논의에 난항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가 '민주당 대 비민주 단일후보' 간 1대1 구도가 형성될지, '민주당-비민주 단일후보-무소속' 간 3파전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과 미국이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돌입한 27일 오전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예산 절약하는 것도 공직자의 본분 제2순환도로 부당계약 수정하라"

강운태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과 확실한 업무 파악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면서 동구와 북구, 남구 등 자치구의 우수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선 5기 방침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이 보고를 마치자 "적어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있는 지, 줄고 있는 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유치지원관실에 대해서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수시로 보고해 줄 것과 투자유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지적했다. 동구의 제7회 충장축제, 북구의 국화전시회 등은 모범사례로 언급했으며, 프로축구단 시민주 2000주를 공모한 남구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의 부실한 업무파악과 민선 5기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시장은 우선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통보했는데 그 이후에 경비 절감을 보고한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처음이다"며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상무소각장 점검 계획을 밝힌 환경시설공단과 국제식품산업전 개최 계획을 보고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소각로 1·2호기 점검 시기 중복과 구체적인 행사 취지를 묻는 강 시장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이에 강 시장은 "자신의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하며 "연간 3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을 하루 빨리 수정하라"고 관계 실과에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서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여성 가산점 특혜 논란 확산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4명이 압축되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도 여성후보에게 20%를 부여하게 돼 있는 가산점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여 남성 후보들은 '이중 특혜'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등 가산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산점을 둘러싸고 공천 막바지까지 남성·여성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중앙당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과 박혜자 호남대 교수,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가나다 순) 등 4명을 상대로 28일 TV 토론을 한 뒤 29일 여론조사를 거쳐 30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시민과 당원 각 50%가 참여하는 시민참여경선방식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각 후보 이름과 경력(현직 포함)을 2개 가량 포함시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사용될 경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차 경선 후보 압축과정에서 15%의 여성후보 가산점 혜택을 받은 김선옥·박혜자 예비후보는 또다시 여론조사에서 여성후보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3월 2일 개정한 당규 제46조 공직선거후보자 결정 2항에 '당헌 제96조 제6항에 따라 여성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에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용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 압축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위해 15% 가산점을 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또다시 본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2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이중, 삼중특혜다"고 주장하며 이날 여성 가산점 철회 건의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송갑석 예비후보도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여성 20% 가산점과 비민주 야 4당의 역선택이라는 두 가지 장벽이 있지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주민들의 지지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여성후보 가산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성후보에게 재차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선후보 포함전 홍보물 발송 의뢰 논란

조용진 예비후보 "합법적"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군에 극적으로 합류한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최종 결정 이전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을 의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용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서광주 우체국에 예비 후보 홍보물 발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그 시각에는 민주당 비대위가 조용진 예비후보를 최종 경선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야 조용진 예비후보를 추가로 최종 경선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용진 예비후보가 이날 비대위에서 자신을 최종 경선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을 미리 알고 예비 홍보물을 발송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고위층 인사가 조 예비후보에게 이날 비대위에서 최종 경선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은 선관위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특히, 최종 경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지도 제고 등 추후 서구에서의 정치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예비 홍보물 발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7 재선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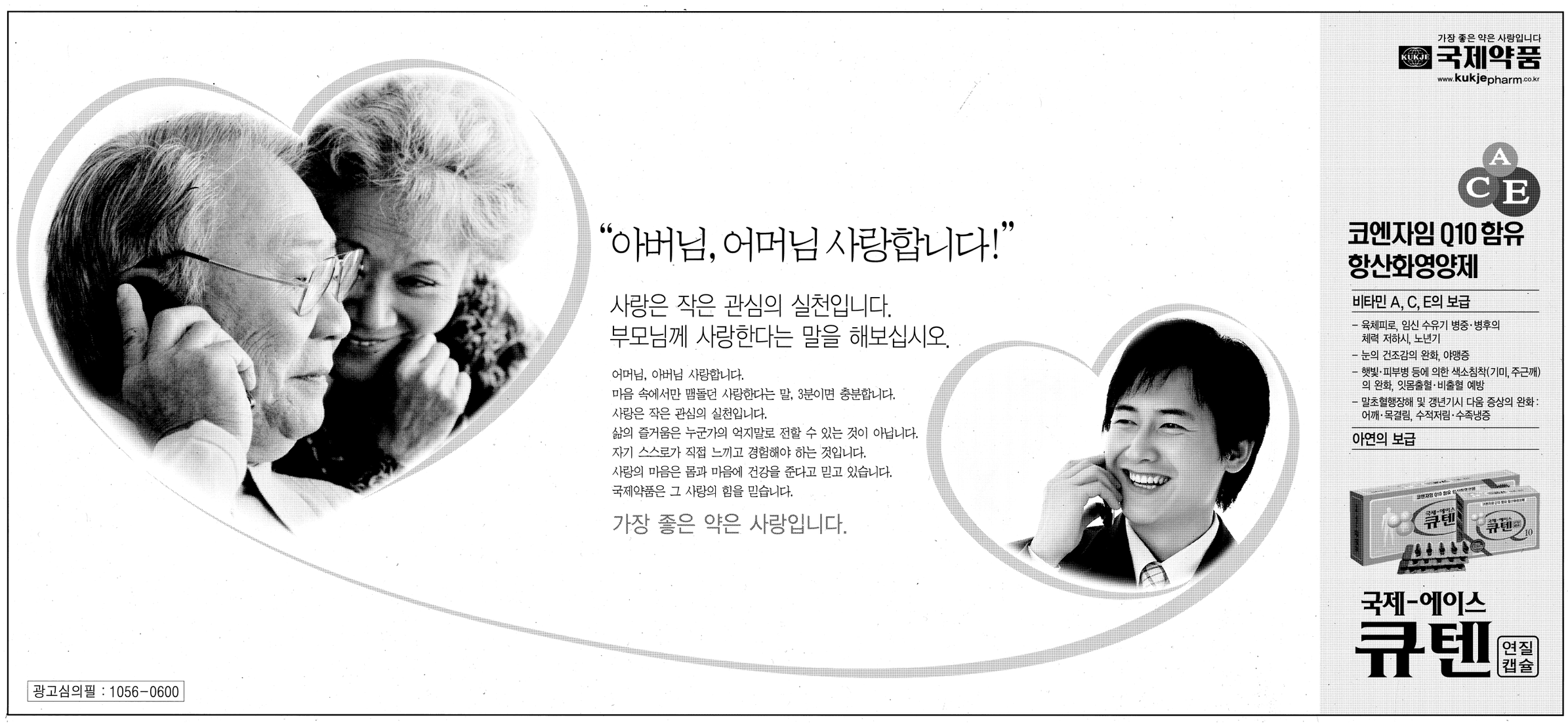
강기수,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 선언

강기수 민주노동당(전 광주시당위원장) 예비후보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년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부패에 맞선 공무원노조 활동의 장점을 살려 '깨끗한 진보 구청장'이 되겠다"며 "15년간 일방적인 행정을 종식하고 지방자치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진보적 지방자치시대를 서구에서 반드시 열겠다"고 서구청장 재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출신인 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설립 ▲공공도서관 확충 ▲부정부패 추방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혜자 "서구 발전 위해 헌신하겠다"

박혜자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치경험도 미천하지만, 20년간 연구하고 직접 쌓아온 노하우를 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1차 컷오프 통과를 당심과 민심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여성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 지방의원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